

CES 현장 찾은 SKT 유영상 사장 –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

5G · ICT 초협력 강화키로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(온라인 기준) 한국 1/6(목) 9시, 라스베이거스 1/5(수) 16시** |

**[2022. 1. 6] – 사진보도자료 -**

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은 5일(현지시각)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·가전 전시회 'CES 2022'에서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을 만나 5G, AI, 메타버스 등 폭넓은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"삼성이 융합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"며 "SKT도 모바일부터 유선, IPTV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|  |
| --- |
| ※ 사진설명  SK텔레콤 유영상 사장(왼쪽)이 5일(현지시각) ‘CES 2022’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(오른쪽)과 함께 삼성전자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|

**▶ 관련문의 :** **(미국 현지)SKT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(02-6100-3816)**

**(한국) SKT PR실 전략PR팀 이교혁 매니저(02-6100-3870)**

**<끝>**